

“전통燈 만들며 불교 문화 지켜 나가요”

부산연등회 1월 29일~30일 전통등 강좌 개최

전통등(燈)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계승하기 위해 부산불교가 나섰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 '2015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전통등 강습회'가 1월 29일~30일 부산불교회관 4층 전법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강습회는 부산연등축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물론 전통등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옛 문헌을 바탕으로 전통등을 복원 등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또한 마늘등, 거북등, 북 모양의 전통등을 참가자들이 직접 실습해 눈길을 끌었다. 무료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는 범어사, 미타선원, 해광사, 여래사, 선암사 동명대 불교학과 등에서 제작실무자, 각 대학 미술전공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부산불교연합회 '2015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의 '전통등 강습회'가 1월 29일~30일 부산불교회관 4층 전법관에서 개최됐다. 사진 왼쪽은 등 제작 실습 장면, 오른쪽은 참가자들이 자신이 만든 연등을 들며 환하게 웃고 있다.

30여 참가자 이론과 실참 배워

마늘등 거북등 등 전통등 재현

5월 공모전 개최 수상작 전시도

수업은 한국전통등연구원 부현도 작가의 5명용 강사로 초빙 이론과 실참, 품평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작기법 시연 및 실습, 전통등 보수 및 제작실습, 전통등 골조 제작, 전통등 골조와 매듭, 전통등 채색 등 실질적인 제작 과정에 관한 수업으로 참가자들에게 흥미를 유발시켰다.

범어사 신도 박명숙(49)씨는 “그동안 범어사에서 등 만들기 봉사를 해왔지만 문헌에 근거한 전통등 만들기는 처음 시도해봤다. 막막하기만 했는데 직접 도전해보니 매

미나와 학술대회 그리고 강습회를 통해 전통등의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문서화하고 보급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 서보인 부장은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사진과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문서화하고 양식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현재 부산불교연합회에는 옛 문헌을 통해 복원한 40여개의 전통등을 마련했고 부산연등축제 기간에 전통등을 전시하고 보급해 그 중요성을 알려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심삼 스님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등은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며 “등 문화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 모두 노력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스님은 “지난해는 세



이 자리에는 종정 윤허당 연화 대종사를 비롯해 정각 도행 스님(원로위원장), 법운 스님(원로위원), 현준 스님(종회부의장), 해담 스님(포교위원장), 지성 스님(호법위원장), 동승 스님(비구니회장), 혜월 스님(교육위원장), 정인 스님(사무총장), 윤영선 울산국회의원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월호 사건으로 준비했던 봉축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었다. 올해는 지난해에 준비한 많은 부분을 보완해 더욱 성대하게 개최할 것”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앞으로 부산불교연합회는 전통등의 아름다움과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5년 부산연등축제 전통·창작 등 공모대전'을 개최한다. 참가 신청은 4월 20일~5월 7일까지이며 부산연등축제 홈페이지(www.bb48.or.kr)를 통해 접수 받는다. 출품 부문은 '한국 전통등과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창작등'과 '한국전통등과 창작등으로 손잡아가 포함된 행렬 등'이다. 입상작들은 5월 13일~26일 용유산 공원 시립미술관 및 야외 전시장에서 전시된다. (051)867-0501~3 **하성미 기자**

(사)한국불교연화조계종 총무원장에 도심 스님

2월 1일 양산 대인사서 취임식

(사)한국불교연화조계종은 2월 1일 총본산인 양산 대인사에서 제2대 총무원장 무불당 도심 스님의 취임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종정 윤허당 연화 대종사를 비롯해 정각 도행 스님(원로위원장), 법운 스님(원로위원), 현준 스님(종회부의장), 해담 스님(포교위원장), 지성 스님(호법위원장), 동승 스님(비구니회장), 혜월 스님(교육위원장), 정인 스님(사무총장), 윤영선 울산국회의원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법운 스님의 국운융창 기원과 원로위원장 도행 스님의 개식사와 비구니회장 동승 스님의 고불문 등이 이어졌고 1대 총무원장 보월 스님이 신임 총무원장 도심 스님에게 직인을 인수인계했다. 2대 총무원장이 취임한 도심 스님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졌다. 초발심의 자세로 돌아가 모든 종도들이 갈등과 대립을 원용의 지혜를 통해 화해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종도들의 의견을 널리 구할 것이니 원로대덕스님들과 종도들의 협조를 부탁 드린다”며 취임사를 전했다.

종정 윤허당 연화대종사는 연화장 세계를 이루어 나가자고 법문했다. 스님은 “스스로 참회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오연된 환경 속에서 헤아릴 수가 없다. 한 구절의 법문을 듣는 공덕이 천만번의 불공보다 뛰어나다고 불교는 가르치고 있다. 모두가 수행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대중들을 잘 이끌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원로위원장, 종회부의장, 호법위원장, 포교위원장, 교육위원장, 비구니 회장, 사무총장 및 각 부장, 국장스님들도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한국불교연화조계종 제2대 총무원장에 무불당 도심 스님이 취임했다.

운문사 승가대학 제 51회 졸업식 개최

2월 1일 졸업생 32명 배출

비구니 승가 교육의 산실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이 2월 1일 제 51회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승가대 28명과 불전대학원 졸업생 4명까지 총 32명이 졸업의 영광을 안았다.



운문사 승가대 졸업식 장면

이 자리에는 팔공총림 동화사 총무국장 지월 스님,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운문사 승가대학장 흥륜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학감 운산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졸업증서 수여는 대표로 불전 대학원 동화 스님과 승가대학 경운 스님이 각각 수여했고 치사, 상장수여, 기념품 증정 등으로 식이 진행됐다.

회주 명성스님은 “유서 깊은 도량에서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한 것은 우연한 인연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배움은 내일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신심을 가지고 책임과 성실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어 인류의 등불이 되어 살아

가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보살도를 실천하는 운문인으로 종단과 한국불교의 기둥이 되어 달라”고 인사를 했다.

한편, 운문승가대학은 이번 졸업식까지 192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는 현재 6천여 전국 비구니스님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MBSR 명상 치유로 행복의 길 찾아요”

부산 해운대 명상수련 전문도량 시선원(원장 우현)은 MBSR 명상치유 프로그램 제 7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강사로는 K-MBSR 개발자이며 前 한국명상학회 장현갑 회장, 명상센터 시선원 우현 원장, 고려대 심리학 및 뇌과학 윤병수 교수 등이 참여한다. 교육 일정은 3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로 8주간 동안 이어진다.

MBSR 이론 프로그램은 △K-MBSR

명상의 이해 △심신의학 기본원리 △스트레스와 심신의학 △스트레스 관리와 대처법 △명상치유의 과학적 원리 △지금 이순간과 함께하기 △명상실습과 심신이완법 △바디스캔(기본, 고급) △호흡명상(기본, 고급) △자애명상(기본, 고급) △마음챙김 명상요가(기본, 고급) 등으로 구성된다. 실습으로는 △바디스캔 △호흡명상 △정좌 명상 △하타요가 △수련 후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051)746-7611 **하성미 기자**

초읍 불광사 만다라 제작 봉안 법회

부산 초읍 불광사(주지 보광)는 티베트 모래 만다라를 제작 봉안한다. 불광사는 2월 27일 불광사 신중당에서 ‘티베트 만다라 봉안 법회’를 개최하고 전일기도에 입재한다.

이 자리에는 나성린 국회의원 및 사부대중 400여명이 동참하며 법문은 통도사

박물관장 지춘 스님이 맡는다. 이날 참석한 사부대중은 천일기도 입재에 들어가며, 라오스 계몽 사업을 위한 후원에도 참여한다. 또한 봉안될 만다라는 2월 21일~27일 불광사에서 제작하며 가로 2m x 세로 2m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설날, 나눔으로 福 짓고 새해 맞아요”

부산 복지관 소외이웃 위한 나눔 행사 풍성

부산 불교 복지단체들이 소외 이웃을 위한 ‘설맞이 나눔 행사’를 마련한다. 용호종합복지관(관장 이충선)은 2월 16일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정, 장애인 세대를 위한 ‘福을福술한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용호복지관은 지역의 어려운 가정 400세대를 선정, 설날 떡국거리를 제공하고 어르신 노래 자랑대회와 국악공연 등을 연다.



용호복지관의 지난해 설맞이 나눔행사 장면

이와 함께 용호복지관은 ‘사랑의 떡국떡 판매’도 진행한다. 떡국떡은 1kg에 5천원이며 수익금은 소외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아울러 쌀, 가래떡, 과일, 김, 세수용품 등의 현물 후원도 받는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법)은 2월 13일 지역 독거노인과 저소득 이웃 200세대를 선정하고 ‘설 정(情)나눔’ 행사를 연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레 준비가 힘든 가정을 선정 떡국떡, 과일, 대추, 간식 등 세수용품들을 직접 나누줄 계획이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소외 이웃을 위해

함께 나눔에 동참하며 마음까지 훈훈한 명절을 보내자”며 나눔 후원의 동참을 독려했다.

사회복지법인 범어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채종현)은 “월동물품 나누기 및 설날 선물 나누기”를 실시한다. 이에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은 내복, 난방유, 세수용품 등 물품 후원 신청을 받고 있다. 설날 선물 나누기 행사는 독거 노인, 저소득 가정 및 장애인 가정 150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월16일~17일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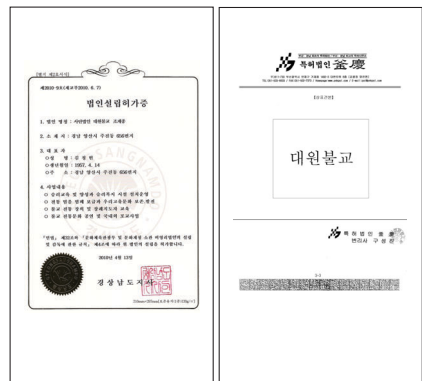
하성미 기자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종 안내 ◆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영함면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바깥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침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0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여경실 055)364-4747
-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정산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석지현)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원불교종정협의회 상임이사

원로회	승정원	중앙총회	호법원	감찰원	사정원
고문 서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원로위원 석무겸 원로위원 석보형	승정원장 석원정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총회장 석덕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철산	호법원장 석원명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감찰원장 석법현 포교원 포교원장 석해광	사정원장 석법경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총무원	교구총무원	중앙위원회	부산 제2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원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운오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관오 의전부장 석명오 비구니회장 석도현	구미총무원장 석해광 전남총무원장 석법진	전북총무원장 석철산 진주총무원장 석덕오	마산총무원장 석법경 강서총무원장 석혜륜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해광사(총무소) 051)505-2461 해광사(팩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부산시부 제2 총무원 해광사	
교육원					총본산 인터넷 주소: www.dwbk.net
교육원장 석철오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화하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